

“지진·화재 등 일상위험 보장 강화... 헬스케어 확대”

김용덕 손해보험회장 기자간담회

다중업소 의무가입 담보 확대 중·소공사장 의무보험제 적용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올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키는 든든한 손해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배상책임보험 등 상품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올해 첫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손보 본연의 경쟁력에 기반한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손보산업은 지난해 기준 약 270조 원에 달하는 자산규모를 자랑한다. 전 세

계 손보시장에서 7위(2016년 스위스리 기준)라는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사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손보산업은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올해 손보산업의 원

수보험료 증가율은 지난해 3.0%에서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장기손보의 성장세에도 급격한 둔화(2017년 3.0%→2018년 2.1% 전망)가 예상된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보험료 조정 및 실손보험의 가입수요 불확실성도 예견된다.

김 회장은 “손보협회는 현재 직면한 도전을 타개하고 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신뢰에 기반해 손보산업과 연관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먼저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 제천 화재 등 각종 재난 위험과 관련해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보장 강화에 나선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개성 건의를 통해 의무가입 담보를 기존 화재 및 폭발에서 붕괴를 포함하는 등 확대하고 가입금액 역시 재난안전법 등과 동일한

대인 사망 인당 최대 1억5000만원(기존 최대 1억원), 대물 사고당 최대 10억원(기존 1억원)으로 상향한다.

빈번한 크레인 전복사고 등 공사장 사고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국책 대형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의무보험 제도를 중·소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또 맹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도입 건의를 통해 맹견 사고피해로부터 피해구제 방안을 갖추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성보험의 보장도 강화한다. 지진 피해까지 보장받으면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는 정책성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시설(공장·건물)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한 헬스케어와 의료행위의 구분 등을 논의했던 복지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 등과 협의에 나선다. 해외 보험사 등의 헬스케어 서비스 진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민간의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국민 생활 및 보험료 할인 등 민간 의료비 절감을 유도한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제휴 등 동반성장으로 고용효과 극대화를 노린다.

협회는 아울러 불안전 상품 판매 근절 등 업계 자정 노력을 통해 손보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부담하고 불안전판매 이력이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촉심사기준 강화 및 안전판매 교육 확대 등 불안전판매 방지 노력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소비자 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손보산업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벤처 창업·지원에 3년간 펀드 ‘10조’ 조성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 확정

올 2.6조... 주요국 수준으로 투자
GDP대비 투자비중 0.23% 전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돕는다. 오는 2020년까지는 총 10조원 규모를 투자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를 주요국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3조7000억원을 출자해 이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 10조원 혁신모험펀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산인과 산은캐피탈이 공동으로 3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정책펀드 회수재원을 보탠다.

혁신모험펀드가 투입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15년 기준 0.13%에서 2020~2022년에는 0.2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33%, 중국은 0.24%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를 위해 혁신모험펀드 산하에 ‘혁신창업펀드’와 ‘성장지원펀드’를 설치했다.

혁신창업펀드(2조원)는 엔젤투자자와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되 연속적인 투자를 위해 일정 범위 내 성장단계 투자를 병행한다. 성장지원펀드(8조원)는 성장 벤처기업과 인수합병(M&A) 등 성장·회수 단계에 중점 투자한다.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공급을 위해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총 2조원의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중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상을 보증부대출을

우대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의 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총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은·기은·산은캐피탈 등이 우대금리 제공 등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1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4조6000억원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올해 정부 재정에서 3000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000억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 회수재원 2000억원을 각각 투입해 1차로 2조6000억원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오는 3월 민간 운용사 공모·선정해 9월까지 민간투자자 확보 등을 통한 펀드를 결성, 연내 투자 실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혁신모험펀드로 민간부문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혁신창업펀드에 대해선 민간투자자에게 공공부문 출자지분의 최대 50%까지 지분매입권(콜옵션)을 부여하고, 초과이익 이전이나 우선 손실충당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주금공-카카오은행, 금융서비스 혁신 MOU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한국카카오은행 본사에서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한 포괄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같은날 주금공이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금융 상품 개발 등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철환 주금공 사장(가운데), 이용우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오른쪽), 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가운데)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금공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신한은행’ 입점

셀프 창구 ‘유어 스마트 라운지’ 배치

신한은행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점행사를 시행하고 18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4개 항공사가 연간 18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계획이며,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은행·환전소 경쟁입찰을 통해 제1 사업권을 따낸 바 있다.

이번 제2여객터미널 개점으로 신한은행은 주요 4대 국제공항(인천·김포·제주·김해) 여객터미널에 모두 입점한 유일한 은행이 됐다.

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영업점은 신한은행의 점포를 새롭게 정의한 ‘The NEXT Branch(더 넥스트 브랜치)’가 적용된다.

영업점 내부에 디지털 체험 공간을 설



신한은행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점행사를 진행했다.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왼쪽 세번째), /신한은행

치하고 셀프 बैं킹 창구인 ‘유어 스마트 라운지’를 배치해 고객이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항에서도 신한은행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25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경단녀 등 추후납부 기간 늘어

오는 25일부터 경력단절여성 등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이 늘어났다.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내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납부예외자만 추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소득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 가능하다.

개정안은 무소득배우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기간에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그간에는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하여 추납하려 해도 반환일시금 반납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었다.

예컨대 지난 1995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1994년 4월부터 2004년 12월 전업주부로 지내던 김모 씨는 2005년 2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 김씨는 다시 퇴사하여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업주부로 집안일에 전념했다. 총 2년의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김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만 추납할 수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차 적용제외 기간에도 추납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 국민연금 수급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불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봉준 기자

‘올원뱅크’ 가입자 150만명 돌파

NH농협銀, 실제이용자 77% 달해

NH농협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가 출시 17개월 만에 가입자 150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출시한 올원뱅크는 실제 이용자 비율이 77%로 실제 이용자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간편송금, 디지털페이, 경조사 초대장보내기 등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또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 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 돋보기 기능을 탑재한 큰글꼴송금과 자산관리서비스, 골드바 구매, 귀농귀촌정보 등의 서비스도 선보였다.

가장 인기있는 기능은 상대방 계좌번호 몰라도 전화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간편송금’으로 누적이용건수는 1700만건, 누적이용금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외화환전도 작년 한 해 동안 34만5000건이 이뤄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